

2015 새 설계

박철환 해남군수

“힐링시티 1번지 만들고 농수산업 규모 1조원 시대 열 것”

박철환 해남군수는 “2015년 한 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공직자와 함께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해남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힐링시티 해남건설로 군민행복시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2015년 해남 군정방향으로 ▲다 함께 잘사는 부자 농·어촌 ▲주민감동 일류 복지서비스 ▲치유여행 일변지 문화관광 육성 ▲균형있는 지역개발 ▲선진교육환경 조성 ▲군민공감 일품행정을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간다.

특히 군은 농·수산업 1조원 시대를 열어 다 함께 잘사는 ‘부자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본격 나선다.

이에 따라 2015년 총 예산 4210억원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인 1220여 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지원 확대 ▲밤호박, 무화과 등 권역별 소득작목(11종) 육성 ▲귀리 생산단지(50ha) 조성 등 소득작목 다변화 ▲패션프루트와 채리, 아스파라거스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작목개발 보급에 힘쓴다.

박 군수는 “해남대표 특산품의 브랜드화 추진과 ‘해남미소’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지역 농·수산물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생산과 가공, 유통에 이르는 6차 산업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문화재단 신설·예술인촌 건립 전남 첫 공공 산후조리원 7월 개원 지역 특산품 브랜드화 적극 추진

이에 따라 군은 5127ha의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8397ha에 새끼우렁이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판파티와 양돈 육가공 체험장 운영, 농업인 힐링체험 지도자 양성에 노력한다. 어촌 6차 산업화의 첫 단추는 송호면 중리마을에 ‘씨푸드 힐링(sea food healin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감동 일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군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과 함께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통합안전 관리센터’를 건립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도입하고 일명 ‘100원 택시’로 불리는 ‘해남 사랑택시’도 운영한다. 전남 최초로 설치되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오는 7월부터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군은 ‘치유여행 일변지 문화관광 육성’으로 해남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FTA대응 권역별 특화작목 확대 육성
- ▲관광과 연계한 농·어업의 6차산업화
- ▲치유숲 조성 등 힐링산업 추진
- ▲따뜻한 해남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100세 시대 군민행복 평생학습 체제 구축

해남만의 특화된 주제인 ‘힐링’을 민선 6기 중심과제로 삼은 만큼 농·수산물과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50ha의 ‘해남 치유숲’을 조성하고 12억원을 들여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한다.

여기에 관광주류 사업과 예술인촌 건립, 문화재단 설립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해남 문화관광에 차별화를 모색해 나간다. 명량대첩 기념전시관 건립과 명량대첩비 주변 정비, 문화관광해설생 개발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군은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쓴다.

박 군수는 “5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해남을 거리에 디자인을 입혀 특색화 하고, 모두 9개소를 정비하게 되는 전통시장은 장터축제와 시설 개·보

수, 상인 경영 혁신교육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망골해남 식품특화단지 는 조기에 분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4개소의 사회적기업 육성, 2개소 마을기업 발굴, 6개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해남, 일자리가 넘쳐나는 해남을 만드는 데도 관심을 기울인다.

군은 ‘인재육성을 위한 일등 교육환경 조성’과 ‘군민공감 일품 행정’에도 적극 나선다.

초·중·고교 학력향상 지원에 13억원, 명문대학교 육성에 4억6000만원, 장학사업에 1억8000만원 등을 투입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100세 시대 군민행복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망골누리 늘찬 배달강좌’가 새롭게 운영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군민공감 일품 행정’을 위해서 군민 현장대회를 확대운영하고, ‘일사천리 민원지원 콜센터’,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등을 운영해 지역 현안을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도 선진행정 벤치마킹 투어를 운영하고 ‘1부서 1정령시책’을 추진하는 등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 해남 땅끝서 힘찬 출발 다짐

‘민선 6기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이 해남 땅끝에서 일출을 보며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사진>

민선 6기 목민관클럽은 지난 9~10일 이틀간 해남에서 전국 31명의 단체장이 참가한 가운데 제5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첫날에는 ‘자립과 자치를 위한 민선 6기 지방자치’에 대한 기초강의와 함께 참여 단체장이 민선 6기 6개월을 되돌아보며 서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참여에서 자치로! 마을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땅끝 전망대에서 해맞이와 함께 민선 6기 혁신 결의 다짐회를 가졌다. 이어 유물전시관과 전통한옥의 혁신적 만남이란 주제로 녹우당을 방문 관람했다.

군은 이번 정기포럼에 참석한 전국 단체장들에게 지역특산물인 매생이와 고구마, 기능성 배추, 버섯 등으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고 땅끝 일출사진을 선물로 제공했다.

한편 목민관 클럽은 ‘21세기 실학운동’을 슬로



민선6기 목민관 클럽 땅끝해남 방문 기념

건으로 지난 2006년 출범한 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가 지자체장의 자발적인 협력과 연구, 소통을 위해 결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철환 해남군수를 비롯해 전국 57명의 단체장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군민이 행복한 진도 만들자”

100여명 참석 신년 인사회

진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2015년 신년 인사회’가 12일 진도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진도청년회의소(회장 박장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이동진 군수, 주선중 의장을 비롯해 각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는 JC 가족 소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JC회장 신년인사, 기관·사회단체장 소개, 신년사, 떡 케이크 절단, 건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JC 박장원 회장은 “2015년 올미년 청양외의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군수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한 지역적·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힘써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미년 새해에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농·어업 소득 1조원 달성, 관광객 500만명 유치 실현 등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군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특수교육 대상 학생 겨울방학 스포츠·원예교실

완도교육청 2주간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최근 2주일간 완도초등학교 체육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20명과 함께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운동능력 발달과 경쟁을 통한 상호작용 능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뉴스포츠)과 여건상 지속적인 참여가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미적 발달을 위한 ‘원예교실’(꽃꽂이, 수경작물)로 나뉘어 진행됐다.

스포츠 교실은 지역 장애인전문 생활체육 강사인 이철근 코치의 지도로 배드민턴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배드민턴을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플라잉 디스크 등 뉴스포츠 활동을 즐겼다. 또한 원예교실은 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서경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심미적 발달을 위한 꽃꽂이 교실 모습.

숙 치료사의 지도하에 꽃바구니와 수경작물 화분을 만들었다.

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순회교육과 진단·평가·배치, 상설모니터단 운영, 진로·직업교육, 학생 및 부모상담, 치료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1944-0444	남원시	0631626-1601
군산시	0631467-2500	순창군	0631653-0444
정읍시	0631531-5544	서울보급소	021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 062 227-9600 | 신문구독 - 062 220-0551 | 예향구독 - 062 220-0550